

제34장 초등논술의 필요성과 전략

1. 논술의 특성

논술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주어진 문제를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글이다.

다시 말하면 논술이란, 주어진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나 주장을 내세우고 합리적인 근거를 밝혀 읽는 이를 설득하는 글을 말한다.

따라서 논술은 어떤 대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대책을 제시하는 형태의 글쓰기로 종합적인 사고능력을 요구한다. 논술을 하기 위해서는 현실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 원인, 해결방법을 제시하되 대다수의 입장을 고려하여 사회가 나가야 할 바를 바르게 제시하는 방향으로 써야 한다. 또한 논술에서는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자신의 주장을 펼치거나 상대방의 주장을 비판하고 반박하는 글을 써야 한다. 어떤 문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밝혀 독자로 하여금 공감하게 하고 때로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만드는 것이 논술이다.

그러나 컴퓨터의 발달과 보급으로 인터넷 안에서 익명의 글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을 감춘 채 무책임한 비판을 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은어사용이 지나치고 청소년들이 자살사이트에 아무런 지 없게 드나드는 등 생겨나는 사회문제는 건전한 비판의식과 논리적, 사고력의 부족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다양하고 새로운 문화가 끊임없이 창조되는 지금의 사회에서 논술교육을 통해 비판의식과 논리적 사고력을 키워야 한다.

논술은 문제 해결 능력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비판적 사고력, 창의력 사고력, 독창적 사고력, 종합적 사고력을 기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논술을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고 그 경험에는 직접경험과 간접경험이 있다. 직접경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인 독서는 인간이 부딪히는 문제에 대해 풍부한 배경지식을 갖출 수 있고 문제 해결 능력까지 간접경험하게 된다.

2. 논술과 독서

논술을 잘 하기 위해서는 사고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 인간은 생각하기 위한 지식을 독서에서 구하고 생각하는 것을 독서에서 배운다. 또한 독서와 더불어 생각하게 될 때 비로소 사물에 대한 이해와 판단이 빨라지고 폭 넓은 인간으로 성장하게 되며 나아가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낼 수 있는 창의력을 가질 수 있다.

독서를 할 때는 능동적인 자세로 읽는 것이 좋다. 글을 읽기 전에 독자가 먼저 글 속의 내용을 예측해 보고 제목과 소제목을 통해 뒤이어질 내용과 주제도 생각해 본다. 또한 작품의 시대 배경을 통해 작품이 갖는 한계와 의미를 파악하며 작가가 갖는 가치관과 철학을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하나의 작품을 통해

누가 읽느냐에 따라 작품 감상이 달라지는 까닭은 독자가 갖고 있는 경험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문제해결 능력도 독자가 갖고 있는 경험에 따라 매우 다를 수 있다.

3. 신문과 독서

신문을 읽다보면 어린이들과 함께 생각해 볼 기사가 아주 많다. 그 중 어린이들이 읽는 도서와 함께 연결해서 가상 이야기에서 뿐 아니라 실제의 이야기를 통해 사고력과 비판력 판단력을 키울 수 있다.

1) 우리나라에는 현재 외국인 노동자가 매우 많다. 다음 두 기사를 읽고 ‘블루시안의 가위 바위보’(창비), ‘노동자에게 국경은 없다’, ‘국경 없는 마을’, ‘잘가라 내동생(라이사 아줌마)’ 등의 책과 함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논술을 해 본다.

2) 주인공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동안 함께 했던 한국의 친구에게 편지 쓰기
-주인공을 고국으로 보내지 않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 찾아보기
-우리 주변에서 만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그동안 가졌던 감정과 바뀐 마음 정리하기

“이젠 아들과 맘놓고 놀이공원 갈 겁니다”

14년만에 ‘불법체류자’ 딱지 떼 네팔인 푸르자

“이제는 안 잡혀 가지?” “그래, 너 대학 가고 결혼할 때까지도 같이 있을 수 있어.”

가을이 끝자락으로 내달리던 10일, 의정부의 허름한 단칸방은 아버지와 아들의 따뜻한 대화로 빨갛게 물들었다.

나렌드라 푸르자(34)는 네팔 사람이다. 물론 외국인이다. 그러나 지난 14년 동안 그는 외국인이 아니었다. 한국에서 그는 ‘불법체류자’였다. 그가 드디어 ‘합법’ 외국인이 됐다. 서류 한장에 불과한, 그러나 자신이 이 나라 사람이 아님을 증명해 줄 그 서류를 얻기 위해 푸르자는 한없이 마음을 졸여야 했다. 돈벌이 때문만이 아니었다. 한국 국적인 여덟살짜리 아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겨레> 6월13일치 11면 참조

지난 6월 “아들을 두고 강제출국 당할 수 없다”고 호소하던 그가 지난달 법무부로부터 외국인등록증을 받고 불법체류자란 딱지를 떼었다. 1991년 관광비자로 한국에 온 푸르자는 공장에서 만난 한국인 아내와 97년 아들 유진(8)이를 낳았다. 불법체류 신분이어서 혼인신고를 못했고, 유진이는 엄마 성과 호적을

따랐다. 부인이 이듬해 집을 나갔고, 푸르자는 불법체류자 단속과 강제출국 위협에 떨어야 했다. 강제출국되면 어린 아들만 홀로 남게 될 처지였다.

외국인노동자 상담소를 운영하는 안양 전진상복지관을 통해 법무부에 진정서를 냈지만 14년이라는 불법체류 기간이 너무 길었다. 푸르자의 안타까운 사연에 망설이던 법무부는 보도가 나간 뒤 마침내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자진출국해 불법체류 상태를 해소한 뒤 자녀를 한국에서 키우기 위해 재입국을 원하면 입국 및 체류 허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유진이를 옆집에 맡기고 8월16일 네팔로 떠났다. 아버지도, 아들도 떨어져 있기는 처음이었다. 14년 만에 돌아간 고향 가족들은 눈물로 푸르자를 만났다. 겨우 1주일 동안 14년 밀린 회포를 푼 뒤 푸르자는 네팔 주재 한국대사관에 살다시피 하며 재입국 비자를 기다렸다. 그렇게 기다려 받은 비자는 ‘F1’ 방문비자. ‘귀국’할 길만 열린 것이다. 일단 들어와 기다리던 그에게 낭보가 전해졌다. 비자를 ‘F2’ 거주비자



로 바꿔준다는 연락이 온 것이다. “머릿속에서 번개가 번쩍했습니다. 이젠 아무 걱정 없이 유진이를 키우면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저보다도 공장 식구들과 이웃들이 더 좋아합니다.” 법무부에 진정서를 써주고, 유진이가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동거인으로 주민등록에 올려준 고마운 사람들이다.

이 가을이 다 가기 전, 푸르자는 유진이의 손을 잡고 놀이공원이라도 가려고 한다. 단속이 무서워 아들과 함께 나들이 한번 제대로 못가봤기 때문이다. ‘록 인 유어 아이즈~’, 요즘 푸르자의 휴대전화에는 한국 사람들처럼 컬러링이 흐른다. 글·사진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망글망글’ 망글라 어린이 속눈썹 눈 까둑

불법체류 부모따라 귀국 친구에 ‘안녕’ 입도 못떼

출발선에 선 나지아(13·부천 심원초등학교 5학년)의 두 다리에 힘이 불끈 들어갔다. ‘망’하는 종소리와 함께 나지아는 힘껏 내달렸다. 한국에서 달리기할 수 있는 ‘마지막 운동회’인 탓인지 얼굴 표정이 진지했다. 눈에 스친 한국의 하늘은 더없이 파랗다. 나지아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달리기에서 1등으로 테이프를 끊었다.

4일 운동회가 열린 경기도 부천시 심원초등학교에서 만난 나지아는 한국 아이들과 똑같이 조잘대고 깔깔댔다. 방글라데시에서 태어난 여자 어린이인 나지아는 5년 전 부모를 따라 한국에 왔다. 하지만 아버지 뚜뜰(37)의 비자 기한이 지난달 4일 만료됐고, 어머니 나즈마(35)는 지난해 12월 불법체류자 신분이 됐다. 나지아의 가족은 19일 다시 방글라데시로 돌아간다. 나지아는 “부모님이 단속이 심해 돌아가신다고 했다”며 “친구들을 떠나야 한다는 게 제일 마음 아프다”고 말했다.

나지아의 첫번째 운동회는 ‘눈물’ 속에서 지나갔다. 2000년 초 한국에 온 나지아는 몇 달 뒤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갔다. 그러나 ‘안녕하세요’가 할 줄 아는 한국말의 전부였다. 같은 반 친구들은 피부색이 까무잡잡한 나지아를 ‘아프리카’ ‘검둥이’라고 놀려댔다. 나지아는 “마음이 무척 아팠고, 매일 울었다”며 “어떤 때는 귀를 막거나 애써 못 들은 척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교는 하루도 빠지지 않았다. 나지아는 서너 달 만에 한국말을 조금씩 익히기 시작했다. 친구도 하나둘씩 생겼다. 수업 준비물을 빠뜨린 친구들에게 자기 것을 나눠주기도 했다. 3학년쯤 돼서는 친구들과



부천/김진수 기자 jsk@hani.co.kr

‘인기쟁’ 열세살 나지아

마지막 운동회날도

달리기 1등 “친구야 미안”

스스럼없이 지내는 사이가 됐다. 나지아는 3학년 때 자신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친구들이 병문안을 온 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친구들이 이방인인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준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친구들은 “생일잔치에도 초대하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 나지아도 똑같은 사람이다”고 말했다.

지금 나지아는 성격이 밝고 활발해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쟁’이다. 올

해는 반 친구들의 추천으로 부반장까지 맡았다. 반 친구 41명 중 25표나 얻었다.

그렇지만 나지아는 지난해 10월을 가장 힘든 때로 기억한다. 아버지가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두어 달이나 병원에 입원했고, 어머니는 새벽 1~2시까지 공장 일을 해야 해, 세살짜리 여동생을 그가 돌봐야 했다. 곰팡이가 피고 비가 새는 반지하방을 거의 1년마다 이사를 다녀야 했던 점도 잊기 힘든 고통이었다.

이날 나지아의 아버지는 운동회에 오지 않았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야근조로 일해 얼굴을 마주하는 것조차 어렵다. 어머니는 요즘 불법체류자 단속이 부쩍 심해져 문밖 출입을 할 수 없다. 나지아는 “얼마 전 이웃에 살던 방글라데시 삼촌은 경찰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 잡아갔다”며 “아무 잘못도 없는 삼촌들을 왜 잡아가는 거냐”고 말했다. 그때부터 바깥 잔신부름은 나지아의 몫이 됐다.

나지아는 곧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직까지도 친구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있다. 울음도 나올 것 같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몰라 혼자서 가슴앓이만 하고 있다. 하지만 담임 선생님이 친구들도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망설이고 있다. 나지아는 “운동회날은 기쁜 날인데 나 때문에 기분을 망치게 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이번 주는 넘기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나지아는 나중에 한국에 꼭 다시 오고 싶다고 했다. 나지아의 꿈은 통역사가 돼 한국과 방글라데시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는 것이다.

이호를 기자 helee@hani.co.kr